



황종흠펠로우십 심사를 마치고

글 : 울산대학교 조상래 명예교수 / srcho@ulsan.ac.kr

대한조선학회는 이신형 회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학회 발전기금 기부 관리와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너스 클럽(Honors Club)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아너스 클럽에 ㈜KTE 구자영 회장께서 2023년 4월, 1억 원을 기탁하셨다. 기탁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기탁자와 대한조선학회 회장단이 논의한 바 이 재원을 대한조선학회 제12대 회장이셨던故 황종흠 교수님의 공적을 기리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의 실천 방안으로 향후 우리나라 조선해양 분야의 학문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원을 매년 1명 황종흠펠로우십 멤버로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선정대상자 범위를 국내 조선해양공학 관련 학과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정하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1천만 원의 격려금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심사 진행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학회의 젊은 회원들을 위해 황종흠 교수님과 구자영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한다.

황종흠(黃宗屹) 교수님

황종흠 교수님은 1928년 함경남도 단천(端川)에서 출생하였고, 1950년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하셨다. 2년간의 대한조선공사 근무를 거쳐 1952년부터 1993년까지 40여 년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봉직하시면서, 특히 선박유체역학 분야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이 분야 연구의 터전을 닦으셨다. 또한 대한조선학회와는 초창기부터 깊이 관여하여 초기 대한조선학회지의 편집을 담당하였으며, 학회의 제12대 회장을 맡았고, 선박유체역학연구회, 수조시험연구회 등을 창립하셨다.

황 교수님께서서는 대한조선학회의 국제화에도 많은 열정을 쏟으셨는데 우리 학회의 첫 번째 국제학술회의인 '한일선박유체역학 세미나(1970)'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의 모토라 교수, 이누이 교수, 히로시마대의 나카도 교수 등을 초청하여 후학들이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셨다.

황 교수님께서서는 정년 후에도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2012년 3월 12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실에 출근하시면서 일본의 최신 정보를 번역하여 후학들에게 읽을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의 조선공학에 관한 자료도 소개해 주시는 등 우리나라 젊은 선박유체역학자들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늘 기원하셨다.

구자영(具滋英) 회장님

구자영 회장님께서서는 1933년 경기도 양평(楊平)에서 출생하셨다. 1954년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에 입학하였고,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7년 12월 고등고시 기술과에 합격하셨다. 1958년부터 1976년까지 상공부에 재직하면서 조선계장, 조선과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1만8천 톤급 일반화물선인 팬코리아가 건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조선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우리나라 조선소가 2만 톤급과 3만 톤급 유조선 수주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 또한 울산과 거제도에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셨다.

구 회장님께서서는 1976년 상공부를 퇴직하고 1979년 5월 ㈜KTE를 창업하셨고, ㈜KTE를 선박용 전기 및 제어 기기의 국산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에 이바지 해온 선박용 전장품 전문 제조업체로 키우셨다. 뿐만 아니라 R&D를 통해 업종을 일반산업 분야, 수상함과 잠수함 분야로 확대하고, 다각화함으로써 경영의 안정화도 도모하셨다. 또한 1983년부터 18년 동안 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서 우리나라 조선기자재공업, 나아가 우리나라 조선해양공업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다.

구 회장님께서서는 아흔의 연세에도 ㈜KTE의 공동대표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매주 사흘, 나흘씩 부산 녹산공단에 소재하는 정원이 아름다운 회사에 출근하시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후배들이 세계 조선해양 분야에서 맹활약해 줄 것을 격려하고 계신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규정 제정

2023년 6월 30일(금) 개최된 대한조선학회 제414차 이사회에서는 황종흠펠로우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조상래 전임 회장, 위원으로 김명현(부산대), 안병권(충남대), 우종훈(서울대, 간사), 정준모(인하대) 교수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승인하였다. 대한조선학회에서 수여하고 있는 기존의 모든 상은 심사 시점까지의 업적과 공적을 근거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종흠펠로우십 멤버의 선정에서는 지금까지의 공적이 아니라 앞으로 큰 공적을 남길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점이 큰 차이이다. 이런 특성을 관련 규정의 제정 단계에서부터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 학회 황종흠 전임 회장의 선박유체역학 분야의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진력하신 공헌을 기리기 위해 구자영 회장께서 회사한 기금으로 황종흠펠로우십 멤버를 선정하고 선정된 멤버들이 우리나라 조선해양 분야의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문이 포함된 '대한조선학회 황종흠펠로우십 선정 규정'의 초안을 준비하였다. 이 초안에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대학원 재학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연구실적과 본인의 소개를 포함한 연구계획서와 대학원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대한조선학회 황종흠펠로우십 심사위원회 운영세칙'과 '대한조선학회 황종흠펠로우십 심사 시행 지침'의 초안도 마련하였다. 심사 시행 지침에서는 심사가 3단계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업성적, 연구실적, 연구계획서와 지도교수 추천서를 각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토의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5명 이내의 2단계 심사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2단계 심사는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지도교수 추천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층 토의를 거친 후 심사하여 3명 이내의 3단계 심사 진출자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심사에서는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면접 점수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 평가한 연구계획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초안들은 2023년 6월 30일(금) 개최된 대한조선학회 제414차 이사회에서, 규정은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운영세칙과 심사 시행 지침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2023년도 황종흠펠로우십 멤버 선정 과정

2023년 7월 31일(월) 지원을 마감한바, 올해에는 5명의 지원자가 있었다. 이 중에서 한 명이 지원을 철회하여 4명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하였다. 4명의 소속은 KAIST 1명, 인하대 1명 그리고 서울대 2명이었다. 1단계 심사 통과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비대면 회의가 8월 9일(수) 21:00에 개최되었다. 1단계 심사 결과의 합산 순위 3위까지를 다음 단계 진출자로 결정하고, 2단계 심사를 생략한 채 3명 모두를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단계인 면접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8월 21일(월) 오후 3시부터 개최하기로 하고, 일인 당 면접 시간은 30분씩 할당하기로 하였다.

8월 21일(월) 학회 사무국에서 개최된 3단계 면접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여 지원자에 관한 질문의 수준을 가능한 한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명의 지원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마친 후 최종 후보자 선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과연 올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심사위원들이 기대했던 수준이 높아서인지 질문에 대한 지원자들의 답변이 심사위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 3명을 들어 보라.'라고 하는 질문에 지원자 모두가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 예를 통해 면접장의 분위기가 어땠을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업적이나 공적이 아닌 누구의 장래가 더 기대되는가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시도라고 판단되어 가능하면 2023년도 선정자를 배출하자는 의견과 지원자들의 답변 수준에 대해 지원자들을 교육한 교수들의 책임은 없는가 (심사위원 모두가 교수이었음) 등의 의견이 개진되어 2023년도 선정 후보자 1위와 2위를 대한조선학회에 추천하게 되었다. 2023년 10월 6일 개최된 대한조선학회 제416차 이사회는 심사위원회가 1위로 추천한 서울대학교 이재학 군을 2023년도 황종흠펠로우십 멤버로 확정하였다.

향후 심사위원회를 위한 제언

2023년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향후에 구성될 심사위원회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한조선학회 황종흠펠로우십 심사 시행 지침'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지침의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심사위원회가 황종흠펠로우십 선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는 규정이나 운영세칙의 개정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시행 지침의 개정만으로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배점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의 업적이나 공적을 근거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평가하여 멤버를 선정하는 것이 그리 용이한 작업은 아닌 것 같다. 2023년도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학부와 대학원의 학업성적과 연구실적도 참고하였지만, 자기소개가 포함된 연구계획서와 대학원 지도교수 추천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계획서도 그렇고 지도교수 추천서 내용에서도 장래의 가능성을 가늠하기가 여의하지는 않았다. 향후의 심사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장래의 가능성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 선정된 멤버가 우리나라 조선해양 분야의 학문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황종흠펠로우십 멤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정된 지원자의 지도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심사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국제화 활동에 대한 조연도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제 2023년도 황종흠펠로우십 멤버의 선정 과정이 모두 끝났다. 하지만 올해의 선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20~30년 후에나 있을 수 있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멤버로 선정된 당사자는 물론 이거니와 심사위원, 지도교수 그리고 대한조선학회 회원 모두가 늘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